

# 전 진안군민 용담호 물 마신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 도모

## 군, 932억원 투입 2025년까지 진안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추진

모든 진안군민이 용담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6일 932억 원을 투자해 진안군 전 지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이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상수도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수도 정비 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세우는 10년 주기 중장기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가 마련 중인 2035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된다.

군은 전 군민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전춘성 군수와 관련 국, 과장은 물론 담당자들이 총리실, 국회,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필요성과 주민불편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민들도 용담댐 물 제류 찾기에 나섰다. 진안군 6개 사회단체는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군민 모두 용담댐의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진안군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이어진 주민 서명 운동에도 5,450명이 동참하며 용담댐 물 공급을 갈망하는 지역 분위기가 중앙부처에 잘 전달됐다는 평가다.

2035 국가수도정비계획안을 보면 먼



모든 진안군민이 용담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저, 삼락, 대불정수장 공급지역인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 지역은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총사업비 852억 원을 투자해 정수장 확장 및 관로매설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된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시설폐기가 어려운 월운정수장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진안배수지~월운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지역까지 용담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월운정수장을 활용해 가뭄, 단수사고, 한파로 인한 물사용량 급증

등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까지 동시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가수도정비계획 반영으로 그동안 수량 부족, 수질오염,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등 진안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성과는 전 군민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이뤄낸 정당한 의미 있고 값진 성과"라며 "2025년까지 전 군민에게 광역상수도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

## 주민 삶의 질 향상·정주여건 개선 기대

진안군은 지난 16일 마령면 마령활력센터와 마령뜰 한미음광장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정환오 추진위원장, 정건채 남서울대학교 PM단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참석인원 100인 미만으로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2m 이상 거리두기 등 철저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식전행사인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정환오 추진위원장의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사업추진 공로자들을 위한 전춘성 진안군수의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중심공간인 면소재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편의, 상업, 문화·복지 등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안군 마령면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선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1억원(국비 56억원, 지방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했으며 2020년에 시설물을 준공하여 마령면의 기초생활인프라 및 정주 기반시설을 확충해 면소재지에 문화·복지·교통서비스 공급기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마령활력센터, 마령뜰한미음광장, 옛마령장터, 작은복음당, 경로당개선 ▲지역경관개선으로 중심지 보행환경정비, 주차장 조성 ▲지역역량강화로 인재육성, 홍보마케팅, 공동체활성화, 주민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전춘성 군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면소재지의 문화·복지·교통서비스 기능 향상으로 마령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향후 마령면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환오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령면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금 지원

무주군이 농업인들에게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 수준향상으로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안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상반기 6억8,350만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된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금 용자금을 고정금리 1%(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인 25명에게 지원한다. 군은 앞서 지난 2월까지 용자 희망자를 신청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달 초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업인은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농어촌 소득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향상 아이디어를 가진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용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과 경영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이 사업은 군정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소득원 발굴, 육성과 친환경농업, 농촌관광분야 등 소득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13억2,000만원에 이르는 용자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지원,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재난·재해 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대책 수립

무주군이 재난·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비대책 수립과 추진, 상황반 편성, 현장지도·점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정 지원순환팀을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직원(20여 명)들로 재난상황반(총괄관리, 행정지원, 방호복구, 시설운영관리, 지원)을 편성한 무주군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광역 전처리시설 화재에 대비한 점검,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계획을 마련했으며 ▲재난대응 행동요령 안내서 제작 계획, ▲재난·재해 발생 시 쓰레기 처리대책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대책 등을 수립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인접 시·군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3일에는 현장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및 조치사항, 매립시설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15일에는 장수소방서 화재안전정보 조사반과 함께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 등도 점검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최근 폐기물 관련 시설의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신청 접수

장수군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가공사업장 개보수 및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회원으로 관내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

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회원이 아닌 경우, 사업 신청 시 회원 가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개소당 5,000만원~8,000만원을 선정기준표에 의거 3개소에 순위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또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350-2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장수군,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 시범 운영

장수군은 농촌 고령화, 일손부족, 기후변화 및 귀농인의 안정된 영농정착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트롤리 컨베이어식 순환재배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에 설치해 시범 운영 후 재배안정성과 보급 가능성을 검증, 이를 농업현장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이 운영 중인 트롤리 컨베이어시스템은 224㎡의 면적에 548개 트레이를 3단 X2층으로 설치해 상주 5010주를 심어 생육 관리 중이다.

현재까지 노지 대비 200%이상의 작물이 재배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환경·재배·병해충 관리에 스마트제어기술을 도입해 농작물을 재배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DB구축과 피드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보건의료원, 70세 이상 건강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 고령 어르신을 위한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까지 7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이 참여하는 마을별 건강공동체를 구성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건강공동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을별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마을 공터와 운동장 등 실외에서 운영한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 친화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취지다.

또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주 3회(총 25회) 건강 체조와 걷기 등 어르신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운동을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